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1월 23일 ~ 11월 29일)

월	변재영 가롤로, 이희영 바울리나, 이해연 엘리사벳, 박현이 리사, 이의정 로사, 양은재 스텔라, 양희재 스테파노, 진웅균 시몬, 이보헌 미카엘, 함명숙 소피아, 이영순 베네딕다, 이선용 마리아, 이연원, 엄수희 아녜스, 김정애 수산나
화	염태건 베드로, 이윤희 효주아녜스, 안지후 요한, 송희윤 모니카, 이현수 마리아, 윤석빈 요한, 구절자 카타리나, 정정원 가브리엘라, 신헌영 바오로, 강주자 안나, 김현정 엘리사벳, 김태선 요안나, 김관중 안토니오, 심광섭 세례자요한, 김용주 사도요한
수	이숙희 체칠리아, 정경임 로셀리나, 조영미 리타, 김효순 데레사, 이미정 스텔라, 이찬수 베드로, 김숙자, 김보경 마리아, 김용복 사도요한, 박은미 모니카, 조입분 데레사, 박영선 루치아, 이희정 요안나, 양계순 율리아, 임인순 수산나, 윤영숙 로사
목	박정숙 루치아, 박애순 아셀라, 김도재 마티아, 곽연자, 한상욱 베드로, 김선옥 모니카, 나유환 안드레아, 이금옥 헬레나, 강동우 다니엘, 유미선 데레사, 한덕순 카타리나, 이준익 안토니오, 임명희 아가다, 박정희, 정태두 안드레아
금	박시원 마리아, 임수복 도로테아, 김윤희 베다, 최화연 루치아, 최순희 루치아, 황인성, 황인경, 오지현 실비아, 김기임 프란치스카, 박채옥 에밀리아나, 양동구 암브로시오, 김영숙 카타리나, 이유순 체칠리아, 김정미 베로니카, 금석미
토	한해자 글라라, 백순준 다니엘, 김임룡 시리노, 이아람 요안나, 김금순 카타리나, 방미라 카타리나, 이혜정 루치아, 조현숙 아녜스, 문형숙 마리아, 강태희 데레사, 이정섭 스테파니아, 홍춘자 수산나, 신호순 수산나, 조나라 마리글라라, 정연숙 데레사
주일	윤숙자 모니카, 이종현 요한, 박미화 데오도라, 전상녀, 신순남, 김순금, 최영자, 이성신 엘리사벳, 이오령 이사벨, 이은경 로사, 허미영 미카엘라, 정단우 마르코, 정단현 다니엘, 정재용 미카엘, 김혜영 데레사

레지오 훈화 3-1. 성모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 성모송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와 함께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이다. 성모송의 전반부는 복음서가 전하는 천사의 인사(루카 1,28: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와 엘리사벳의 인사말(루카 1,42: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인사말이 합쳐진 것은 6세기경이다. 이 형태는 이미 6세기경 대림 주일 봉헌문에 나타난다. 다만 오늘날의 성모송처럼 “태중의 아들”이라는 표현 뒤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12세기 말에 첨가된 것이다. 그리고 13세기에 이르러 루카 복음서의 “주님의 어머니”(루카 1,43)라는 표현과 함께 성모송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는 문구가 합쳐졌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에서는 사도 신경이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처럼 성모송에 대해서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자들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성모송은 특히 묵주 기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신심, 27-28쪽>

제42회 성서 주간 담화 (2026년 11월 22-28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에페 5,8-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에 성서 주간을 시작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올해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첫 번째 회칙인「고귀한 인류」를 발표하셨습니다. 인공 지능은 눈부시게 발전하며 빠른 속도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의 진보 앞에서 더욱 숙고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역할과 책임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공동선을 향한 여정이어야 하고(고귀한 인류, 59항 참조), 개인의 이득을 넘어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모상으로서(창세 1,26-27 참조)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에페 5,8-10). 어둠과 빛의 대조는 요한 복음서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1,9)으로 소개되고, 그분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8,12)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1,12 참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 과 '성사' 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바오로 사도는,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10,17). 믿음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입니다. 말씀이 가진 힘은 인간의 나약함에도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2티모 3,16-17). 신앙생활의 다른 축인 성사는 '하느님 사랑과 은총의 가시적 표지' 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구원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성사를 통하여 활동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주며, 그 집전은 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전례 헌장, 59항)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에페 5,8).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찾으며 진실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자연재해와 전쟁이라는 어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한 정 현** 주교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3주일

주일 헌금	980,000	주일헌금(송정)	205,000	교무금	1,195,000
양성, 복지, 원로	168,000	미래 기금	76,000	감사헌금	100,000

교무금 김승옥, 이향숙, 이기영, 이천희, 최삼순, 박영미, 이하나, 강호석, 김명숙, 권일용, 안영재, 신정희, 강민정, 신현수, 손삼술, 이은순, 유정숙, 최인순, 이파랑, 박갑춘, 주선옥, 신재홍

감사헌금 안복현(데레사) 1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11월 20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420,000	13,075,000
		약정 기부	1,800,000	174,540,000
		2차 헌금		12,101,950
		기타 수입		27,717,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63,640,000	411,406,336
		매일미사	12,450,000	145,220,120
		평화방송	10,830,000	328,292,209
		가톨릭 평화 신문	1,030,000	25,174,500
		가톨릭 신문	5,820,000	73,610,000
		ARS 후원		12,132,470
		기타 후원		23,050,000
	합 계		**95,990,000**	**1,246,320,04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14,930,000
	모금 홍보	광고비	11,000,000	95,251,200
		모금 준비비	450,000	15,086,000
		봉사자 지원비		4,366,160
	합 계		**11,450,000**	**165,674,930**
현 잔액			**1,747,493,03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8세대 196,220,000원 중 174,540,000원 납부 (납부율 88.95%)
김주하, 장혜분, 김복연, 강민정, 최윤정, 김석기, 이종석

타본당 모금
스무숲성당 140,000원 이석범, 장경수, 김기숙, 최혜정, 라기춘
죽림동성당 220,000원 김범한, 이정희, 오은진, 박양옥, 유승희
교동성당 1,360,000원 김송철, 변재영, 함은옥, 송경화, 주정열, 박숙희, 김준용, 이미경, 구희송, 장지혜, 전형배, 조범현 **철원성당 300,000원** 김래진, 김준옥
퇴계성당 370,000원 정연우, 박정남, 방인식, 황지은 **응암동성당 150,000원** 김금순, 방미라, 이혜정, 조현숙
대방동성당 22,410,000원 김다연, 김명희, 박순열, 채경자, 강향지, 임헌신, 소진욱, 함혜원, 이준용, 전유은, 이다형, 서은경, 이정순, 임옥진, 성영우, 김희자, 정세진, 권순식, 김연심, 박연옥, 박영숙, 함인식, 최재영, 임서금비, 김문진, 허성환, 조유미, 이낙관, 김희종, 임조옥, 김명숙, 강상구, 이혜환, 이상례, 임은아, 기장서, 백옥희, 이덕례, 서정민, 김좌진, 정홍순, 김숙희, 김승회, 정효순, 문경아, 이민형, 이자영, 이채영, 최성윤, 이범용, 조은자, 심연섭, 유준조, 최영자, 홍수진, 전주영, 정병옥, 황명지, 방성호, 이현수, 피인숙, 함영식, 구미정, 김정현, 이선아, 김순심, 강미선, 오진선, 김영진, 채명옥, 이종실, 윤희순, 강경훈, 장소라, 임현서, 고명자, 박지연, 김보민, 임숙현, 신태호, 문보경, 최인숙, 김홍심, 박유진, 김성재, 박민식, 박현지, 정현영, 김혜옥, 정민영, 구익모, 김윤미, 박정금, 김황용, 명선옥, 한수경, 안칠영, 송갑순, 윤경숙, 김재홍, 박정현, 윤미영, 오시영, 김명순, 백명주, 민병화, 강혜선, 한숙정, 김이식, 정경애, 박연옥, 김문성, 한상우, 김용운, 정현영, 임종금, 서준혁, 이옥배, 유영택, 장영윤
대방동성당 본당지원금 30,000,000원 2차헌금 8,690,000원

매일미사 류연호, 신영순, 임남규, 김승구, 박인희, 이중례, 고강식, 임성희, 이성인, 박미경, 곽원호, 공승연, 정주원, 김유철, 김무숙, 박명옥, 안정자, 안유정, 최영숙, 신소진, 송현숙, 이정숙, 김진승, 박윤숙, 박순심, 박영찬, 정문희, 이태분, 이송학, 이소영

평화방송 한승용, 박경란, 윤정혁, 정구영, 장정희, 이선이, 공은숙, 곽승현, 송재학, 곽한나, 이욱주, 신호철, 김원자, 손경애, 이윤우, 유순희, 홍군자, 유정순, 조영래, 김복희, 고광규, 어인숙, 정영희, 박해정, 정선미, 김혜숙, 조존호, 홍사범, 최정숙, 조춘자, 맹재임, 유이순, 한금자, 김안나, 박순아, 이영자, 이봉순, 이수영, 박지혜, 채순실, 강용천, 정계화, 배신자, 최숙진, 김행웅

가톨릭신문 우경주, 조영숙, 김보경, 문현정, 황인선, 이중길, 김기현, 오미란, 윤명숙, 손원필, 양임자, 석영애, 이영복, 정효선, 양현숙, 오순복, 조효민, 전예원, 신경희, 채혜원, 백마리안나, 안승천, 양승민, 최성장, 송동근, 마리아, 남순덕, 박영희, 유상준

가톨릭 평화 신문 조화자, 이영애, 장창석, 유경숙, 김경태, 이승형, 이진희, 이명옥, 김형진, 김성란

지출
광고비 평화방송, 가톨릭평화신문 10월 광고료
모금 준비비 모금용 볼펜 제작(500개)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26명 참례 / 참례율 : 17.57%

평일미사	토요일 (11/7)	주일미사 (11/8)	토요일 저녁	교중미사		
	12명		39명	87명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71명 참례 / 참례율 : 23.85%

평일미사		월 (11/16)	화 (11/17) 내촌 / 본당	수 (11/18) 본당 / 송정	목 (11/19) 송정 / 본당	금 (11/20)
		10명	12명 / 27명	15명 / 12명	7명 / 20명	13명
주일미사 (11/15)	토요일 저녁	송정공소	교중미사			
	43명	24명	104명			